



## 거룩함으로의 초대

오사카의 보좌주교님 사카이 토시히로

## 차례

|                                                          |    |
|----------------------------------------------------------|----|
| 01. 거룩함의 본질적 의미.....                                     | 5  |
| '하느님이 거룩하다'는 의미.....                                     | 8  |
| 본체론적 의미의 '거룩함'이란.....                                    | 8  |
| 세례와 성화의 은총.....                                          | 9  |
| 02. 윤리적이고 종말론적 의미에서 거룩함.....                             | 12 |
| 종말론적 의미의 거룩함.....                                        | 14 |
| 03. 성 호세마리아의 보편적 성화소명에 대한 가르침. 성화와 사도직에 대한 보편적 성화소명..... | 20 |
| 성소의 의미.....                                              | 21 |
| 초대교회의 신앙과 사도직.....                                       | 22 |
| 하느님의 개인적 부르심.....                                        | 24 |
| 각자의 고유한 성소.....                                          | 24 |
| 04. 교회에서의 성소의 유일성과 다양성.....                              | 26 |
| a. 평신도의 성소: 사도적 독신과 결혼생활.....                            | 27 |

|                                                   |    |
|---------------------------------------------------|----|
| b. 봉헌생활의 성소 .....                                 | 28 |
| 사도적 독신과 결혼의 우열 .....                              | 29 |
| 05. 사제도 소명을 받고, 거룩함도 추구하며, 사도직도<br>수행해야 합니다.....  | 33 |
| 06. 사카이 주교님, “왜 오푸스데이에 들어가셨나요?” .....             | 38 |
| 07. 오푸스데이 신자의 기도생활 .....                          | 45 |
| 08.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 50 |
| 09. 미덕과 악덕.....                                   | 54 |
| 교만은 교만한 이가 죽은 후에도 24 시간 살아남는다.....                | 54 |
| 10.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br>살펴보겠습니다..... | 58 |
| 부속.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 담긴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범<br>.....        | 63 |
| 1,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을 향한 성소의 주요 특징 .....                | 66 |
| 2. 성화의 영역으로서의 일상 생활 .....                         | 79 |
| 3, 사도적 확장.....                                    | 87 |
| 결론 요약 .....                                       | 96 |



## 01. 거룩함의 본질적 의미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학교의 학생이 지각, 결석, 낙제 없이 공부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성인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책임과 결산은 죽음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거룩함을 실천했는지,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움과 강제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일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인의 삶이 됩니다.

원래 성스러운 것은 신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은 인간을 성스럽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에 따라, 창조된 후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은 '원초적 의와 거룩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 항 참고).

이는 하느님의 무상한 은총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느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 타락으로 인해 원죄를 지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이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페 1, 4)“

바오로는 이 편지를 에페소 교회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즉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 바오로는 ‘거룩한 자들께 문안드립니다’ 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비교적 쉽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하느님이 거룩하다’는 의미

하느님은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다만 몸이 없으시므로 “최고”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선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십니다:

하느님께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완전히 선하시며, 악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조화롭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십니다.

## 본체론적 의미의 ‘거룩함’이란

본체론적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서 파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은 본체론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장대높이뛰기를 할 수 있다”는 본체론적이지 않습니다. 장대높이뛰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론적 의미의 '거룩함'이란 세례를 받은 상태, 즉 성화의 은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거룩함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례와 성화의 은총

세례를 받고 원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은총의 상태입니다. 이 성화의 은총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도움의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사를 통해 받는 성사적 은총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성화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사를 받아도 그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큰 죄를 지어 성화의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의 상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요구할 수 없는 상태라 해도 하느님은 은총을 베풀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성인 세례의 경우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 문을 두드리 세례의 은총을 받았다.”

고 말하지만, 사실 먼저 교회 문을 두드리게 하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키는 것은 이미 은총의 역사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성화의 은총이 없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화의 은총이 핵심입니다.

성 바오로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거룩한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란 세례를 받고 원죄를 용서받은 상태, 즉 성화의 은총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미 세례를 받고 성화의 은총을 잃지 않았다면, 모두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02. 윤리적이고 종말론적 의미에서 거룩함

거룩함의 두 번째의 의미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윤리)이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한 삶과 상태를 실행하는 것은 순간순간 가능하지만, 좋은 행실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1년)는 예외적으로 사후에 수여된 경우도 있었지만, 노벨상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죽으면 아무리 큰 공헌을 했어도 후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죽을 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마지막이 나쁘면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좋으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복·시성 조사는 태어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최후의 순간, 어떻게 죽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도 성인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순간만 좋으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십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이 와도 좋도록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제가 사제로서 일하다가 쓰러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사제라면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고도 부러운 일입니다.

## 종말론적 의미의 거룩함

거룩함의 세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 즉 지복직관의 은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성인입니다.

인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먼저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느님이 심어주신 이 거룩함의 씨앗을, 인간은 하느님의 도우심인 은총을 받으며 가꿔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그것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종말론적 의미의 거룩함, 즉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룩함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첫 번째 상태(본질적 의미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상태(윤리적 의미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심어주신 거룩함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11 월에는 국화가 유명합니다. 여기저기서 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사키의 학교에서 지도사제로 근무할 때, 퇴직한 한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국화 재배로 유명하셨고, 국화를 기르는 것을 통해 좋은 인간 교육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 재임 시절 전교생에게 국화 화분을 나눠주고 직접 키우게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화는 잘 가꾸지 않으면 예쁜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리고 국화를 키우는 아이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는 것, 즉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대해, 이미 에페소 교회에 보낸 성 바오로의 편지를 인용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1 장에서 성 베드로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1, 44).

이것은 성 베드로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의미, 윤리적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았다면 윤리적 의미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씨앗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파도처럼 변화합니다. 때로는 좋은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교활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 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되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요한 18, 35-36).

여기서는 ‘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도권과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도 해석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세상이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유지되었으며, 죄의 노예 상태에 빠졌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악한 자’의 권세가 파괴되고

해방된 세상이라고 믿는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2 항).

세상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방되었지만, 아직 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개선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개인,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함을 실천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외면해서도,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 03. 성 호세마리아의 보편적 성화소명에 대한 가르침. 성화와 사도직에 대한 보편적 성화소명

성화와 사도직에 대한 보편적 성소는 성 바오로의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나 성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교회의 초엘리트, 즉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자, 교회의 모든 이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수도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 성소의 의미

성소라는 말은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소는 오랫동안 성직자나 수도자로의 부르심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그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현대는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 곧 성소였습니다. 당시 성직자가 있었지만, 선교의 역할은 오히려 평신도들이 담당했습니다.

또한 성스러움.즉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부담 없이 사용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성도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모든 이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성소’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테오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 티모테오 1, 9).

여기서 부르심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부르심과 사도직 또는 선교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성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사도가 되라’는 부르심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초대교회의 신앙과 사도직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성화와 사도직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화를 지향하면서도 선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다른 이에게도 나누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자녀에게도 먹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성화와 사도직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일류는 불가능하고, 이류나 삼류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변명입니다. 하느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느님께서 “너는 이류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성화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조금만 실천하면 된다는 ‘이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느님의 개인적 부르심

또한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지명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와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기다리던 자캐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캐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자캐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뿐이며 개인적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우리가 배신할 가능성까지 아시면서도 그때그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 각자의 고유한 성소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뜻에 따라 새겨 나가십니다. 얼마 전 ‘일요미술관’에서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의 일본 26 성인 동상을 조각한 후네고시 보타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에 새겨지는 모습은 각기 다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과 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 04. 교회에서의 성소의 유일성과 다양성

유일성과 다양성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의 유일한 성소는 성직자의 성소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거룩함을 가르치셨으며,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화와 사도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선교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화와 사도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소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평신도의 성소와 봉헌생활의 성소를 살펴보겠습니다.

a. 평신도의 성소: 사도적 독신과 결혼생활

평신도의 성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도적 독신과 사도적 독신이 아닌 삶.

사도적 독신은 평신도 중에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는 수녀나 수사와 같은 봉헌생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도적 독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녀회나 수도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신 생활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며,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고,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하여 혼인의 큰 선익을 포기한 남녀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모범이 되신 이러한 생활양식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어떤 사람들에게 권고하셨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8 항).

오푸스데이 평신도 몇분들이 사도적 독신의 삶을 살며 독신의 약속을 지키고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사도적 독신이 아닌 결과적 독신도 존재합니다. 이는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도적 독신은 하느님으로부터 독신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성소입니다.

#### b. 봉헌생활의 성소

봉헌생활은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독신의 삶입니다. 보통 첫 서원을 한 뒤, 몇 년 후에 종신 서원을 통해 신분이 확정됩니다. 교회법상으로도 평신도의

신분에서 봉헌생활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서원을 한 봉헌생활자는 수녀, 수사, 재속회 회원, 사도적 생활회 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평신도의 사도적 독신과 봉헌생활의 독신은 동일하게 독신의 삶을 살지만, 서원의 유무에 따라 교회법상의 신분이 다릅니다.

### 사도적 독신과 결혼의 우열

그렇다면 사도적 독신과 결혼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은 세례의 은총에서 꽃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맺는 유대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징이며, 또 혼인이 사라져 가는 현세의 실재임을 상기시켜 주는 표징이다.

혼인성사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은 다 주님께에서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에 의미를 주시고, 당신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에 대한 평가와 혼인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보완한다.” (가톨릭 교리서 1619-162 항).

여기서 천국을 위한 독신은 아름다운 소명이지만, 혼인 성사 역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사입니다. 따라서 사도적 독신과 혼인 성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를 보완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성화란 독신이나 기혼이나, 사제나 하는 신분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와의 사랑, 56 쪽)

결론적으로 각자에게 요구되는 성스러움은 동일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교를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오늘 아침부터 20 가구를 돌았다”거나 몰몬교인들처럼 “오늘 자전거로 30km 를 돌았다”라는 식의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방식의 선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와 사도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는 사람과 접했을 수도 있고, 전철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톨릭교회는 가가호호 방문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몰몬교인 남자에게 요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올봄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주 “가톨릭교회는 왜 선교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론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교인들은 인생의 젊은 시절 몇 년을 선교에 바치며, 반드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힘든 생활을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직접적인 선교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그것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라는 것이 가톨릭교회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 05. 사제도 소명을 받고, 거룩함도 추구하며, 사도직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전철을 자주 타고 다니곤 하는데 그날은 꽤 만원이었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앞에 있던 소년은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키홀더 같은 것을 단 백팩을 메고 있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옆자리의 사람은 회사원처럼 보였고 아직 근무 중인 것 같았으며, 아저씨들도 몇 분 계셨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입니다. 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도리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제의 소명이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성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유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 성사들은 입문성사, 치유성사, 교회의 친교를 위한 성사,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입문성사란 세례, 견진, 성체성사입니다. 성인 세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받습니다. 유아세례의 경우는 세례 후에 첫영성체, 견진성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유성사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는, 영육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고해성사, 그리고 몸의 치유를 위해서는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두 성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교회의 친교를 위한 성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인성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품성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확실히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결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느님께서 성사로써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사로 보호받는 부부들의 육체적 생명의 지속이 끊어지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서품이 없다면 성사를 집전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영적 생명의 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봉사직으로서의 사제 소명의 의미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의 유지를 위한 성사로서 서품을 받은 이가 사제입니다. 따라서 기본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룩함도 추구하지 않고, 사도직도 수행하지 않는 사제라면, 기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계제도가 없는 교회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계제도는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위 그림과 같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봉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 그림이 더 적절합니다.

“사제는 필요 없다. 지도자는 필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며, 무교회주의에 이르러서는 교회 건물조차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서품 받는 자는 신자들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교황은 예로부터 ‘종들의 종’이라 자칭해 왔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계제도를 원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푸스데이의 존재 의미로서의 고유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 06. 사카이 주교님, "왜 오푸스데이에 들어가셨나요?"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기도 카드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성성을 추구하는 길" 오푸스데이 창립의

이 정신이 오푸스데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푸스데이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전문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성성을 추구합시다"라는 것이 오푸스데이가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푸스데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직이란 일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당연히 그 중에서도 오푸스데이로서 강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오푸스데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이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는 하느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왜 신부님은 오푸스데이에 들어가셨나요?” A 라는 곳도 있고, B 라는 곳도 있고, C 라는 곳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푸스데이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께 도움을 받고, 존경했던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토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 수도회의 신부가 될까, B 교구의 신부가 될까, 오푸스데이의 신부가

될까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지만, 오푸스데이가 가장 훌륭하다고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그래그래, 그거 뭔지 알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분은 결혼하신 분인데“맞선은 다섯 번까지만 보는게 좋아요”(웃음)...첫 번째 맞선에서 이 사람은 그만두자, 여기가 좋지 않아.그래서두 번째 맞선을 봤더니, 그 전 사람보다 당연히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 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그러면 그 전 사람을 포기했는데,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되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맞선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세 번, 네 번, 다섯 번...맞선을 계속 보다 보면 더 이상 결정을 못 하게 되고, 결국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곳을 비교해서 특별히 오푸스데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뭐,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잘못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결혼과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죠.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거기에 저를 걸었으니까요...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푸스데이만의 정신이란 '전문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의 의무' 두 가지를 통해 성성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푸스데이는 전문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를 통해 성성에 이르자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란 무엇일까요?전문직이란 각자의 전문직입니다.다만 각자의 전문직이란 것은 이른바 일, 급여를 받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일입니다.예를 들어, 가사일이 전형적이죠.가사일을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가사일 외에도 자원봉사도 그렇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병...환자에게 있어서 병이란

전문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환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신문에 실린, 손주가 있는 여성분이 쓰신 에세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2 월,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이도 있어서 2 월과 3 월에 연이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겁이 많은 제가 당황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때로는 농담까지 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입원 중에 중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제 병 정도로 허둥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2 학년 손자가 이토록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라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서로 양손으로 늘 하던 하트 모양을 만들며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백중날에 본가의 묘지를 참배했을 때, 지장보살상이 있었는데, 치료받고 싶은 부분을 만지면 낫게 해주신다는 말을 들은 손자는, 지장보살상의 폐와 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다듬고 매달리면서“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포근한 그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을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밝은 환자가 되자.이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산케이신문 2011 년 10 월 6 일에서 인용).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특별히 밝은 환자가 되자”라는 이 말이요.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각오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병을 안고서도 좋은 환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병이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좋은 환자가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겠지요.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란 것은 보통은 혼자서 계속하는

경우란 없습니다.반드시 누군가와 관계가 있지요.관계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불쾌하게 하고 있을까요, 기분 좋게 해주고 있을까요?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당신과는 좀 곤란해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할까요?바로 그것이 성스러움이며, 사도직인 것입니다.물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요.

## 07. 오푸스데이 신자의 기도생활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푸스데이의 신자들이 행하는 신심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오푸스데이 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푸스데이의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매일 미사, 매주 고해성사, 매일 성체조배, 아침저녁 묵상기도, 로사리오 기도, 성경읽기, 영적 독서, 피정, 씨클, 영적 지도입니다.

먼저, 성사의 실천입니다.기본적으로는 매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푸스데이 회원중에는 기혼자도 있고, 독신자도 있으며, 저처럼 사제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따로 활동하지만, 사제는 양쪽을 모두 돌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기본적으로 매주 합니다. "오푸스데이

사람들은 죄가 많나보네!”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사 실천과 관련해서는 성체조배도 매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당이 가까운 사람들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각각 30 분씩 묵상기도를 하고, 삼종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 독서도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꽤 많다고 생각하실지... 아마도 개인마다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피정은 매월 1 회와 매년 1 회가 있습니다. 월례 피정은 반나절 정도이고, 연례 피정은 사람에 따라 3 일에서 1 주일 정도 합니다.

‘서클’이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강의를 듣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또한 개인 영적 지도를 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오후스데이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일 미사, 매주 고해성사, 매일 성체조배, 아침저녁 묵상기도, 묵주기도, 성경읽기, 영적 독서, 피정, 서클, 영적 지도. 이것들이 오푸스데이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적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수는우리의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느님이시라는 것,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이며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즉, 유일신교 -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는, 당연히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불교란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설법하신 것을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 경전이며, 경전을 독경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믿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인격체로서 숭배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도 인정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위격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위격이십니다. 미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 번 살아내는 것이 미사입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체조배. 성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사는 마을 위를 지나간다면, 당연히 유심히 보시겠죠? "저기야!"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고,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겠지만,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보시겠죠? 기도하시겠죠? 성체조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해성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잘못으로 생긴 장애를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범하는 일상의 작은 죄는 매일의 기도나 주일 미사를 통해,

그보다 더 심각하고 큰 죄는 신부님께 청하여 고해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고해소에서 고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말하자면 고해성사는 마음의 대청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청소하고 정리하면 공간이 생겨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상쾌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 08.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백 마리 양의 이야기나 탕자의 비유를 상상해 봅시다. 역시 하느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으니까요. 자신이 용서하는 입장일 때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주 용서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주 용서받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용서받았다고 합시다. 매일같이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괜찮아요, 저도 항상 용서받고 있으니깐요...”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조차도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몇 번이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살인을 저질렀다면 함께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야 하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고해성사에서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이처럼 자주 하느님께 용서받다 보면, 다른 이에게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오푸스데이에서는 미사, 묵상, 고해성사, 묵주기도, 영적 독서, 성체조배 등의 “생활규범”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주 성찰합니다. 그리고 개인 영성지도를 통해 “생활규범”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사제나 영성지도를 해주시는 신자분께  
고백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사실, 오푸스데이에서는 사제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보통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디렉터는  
평신도입니다. 사제는 될 수 없습니다.

사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센터로 돌아가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디렉터는 저보다 스무 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도, “지금 돌아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분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조언해 주시고, 저는 “그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천합니다. 그분 역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사제라서, 또는 평신도라서  
어떻다는 식의 구분은 오푸스데이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때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지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일단 해보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상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묵상시간은 집단으로 하는 것이죠. 묵상시간에는 집단적인 지도를 받고, 영적 지도에서는 개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픈스데이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거룩함과 사도직에 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해지라"는 말씀을 받았기에 완전해져야 합니다. 다만, 완전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 09. 미덕과 악덕

### 교만은 교만한 이가 죽은 후에도 24 시간 살아남는다

“덕”이란 습관입니다. 즉, 덕이 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만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에 비약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갑자기 덕이 몸에 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덕, 신앙, 희망, 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덕에 관한 것입니다. 대신덕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높여갈 수 있습니다.

‘덕’의 반대는 보통 ‘악덕’이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교의 용어로는 ‘죄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곱 가지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956 번에 실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에는 부록에 목록이 있습니다. 이 두 교리서에서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은 교만, 탐욕, 질투, 분노, 탐식, 색욕, 게으름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책에 따라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교만, 마지막은 게으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 얼굴을 내밉니다.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은 비가 매우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반농담으로 “야쿠시마에서는 한 달에 35 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1 년에 240 일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 한 달에 20 일 정도 비가 내리는 셈입니다. 이것을 과장해서 “한 달에 35 일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교만을 두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24 시간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은 끈질깁니다. 사람이 죽어도 교만만은 아직 24 시간 살아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곳에 얼굴을 내밉니다. 어쨌든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으름,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악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소인이 한가하면 악을 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허비하면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화를 잘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는 것입니다. 태어날때부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덕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일곱 가지 죄의 근원과 상대되는 반대의 덕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악덕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플러스

부분을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지요. ‘물욕’의 반대는 ‘청빈’입니다. ‘질투’, ‘시기’의 반대는 어렵지만 ‘애덕’입니다. ‘분노’의 반대는 ‘평화’, 감히 덧붙이자면 ‘침묵’입니다.

‘탐식’에 대해서는 ‘절제’입니다. ‘색욕’에 대해서는 ‘정결’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근면’, ‘질서’입니다.

겸손, 청빈, 애덕, 평화, 침묵, 절제, 정결, 근면, 질서.  
이러한 덕을 실천할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 10.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마태 20, 27-28).

‘청빈’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 티모 6, 6).

류안지의 쓰쿠바이에는 유명한 ‘오직 족함을 알 뿐’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 성경 구절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하여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 15).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페 4, 26-27).

빈곤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마태 6, 25).

근면에 대하여는,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둬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 테살 3, 10).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근원은 성성에 이르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인들도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원죄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이 납니다. 마치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질기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반드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났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빨리 났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성성을 향한 싸움입니다.

신문에서 읽은 재미있는 에세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쓰신 글입니다.

“한 블록 건너 버드나무 거리에서 2가 들어가는 날이면 야시장이 열립니다. 어머니는 빠짐없이 데려가 주셨죠. 새끼 거북이가 갖고 싶어서 매번 조르자 몇 번째인가 드디어 어머니께서 제게 새끼 거북이를 사주셨습니다. 사료값은 제 용돈으로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철 대야에 물을 담고 모래로 섬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듣는게 즐거웠습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거북이 사료를

사러 가서 자연스럽게 거북이 가게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봄여름가을이 지나갈 무렵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거북이가 뒤집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거북이 가게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어이, 잘 지내니?”하며 평소처럼 재빨리 사료 봉지를 꺼내셨습니다.

“5 일 전에 거북이가 죽었어요. 거북이는 만년을 사는 게 아니었나요?”라고 하자, 아저씨는 놀라시며 “생물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마침 만년이 됐는지도 모르지”라고 하시면서 뒤쪽을 뒤적여 작은 수조를 꺼내오셨습니다. “이건 2 년 전에 태어난 거북이야. 건강한

녀석 한 마리를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라고 하며 받은 거북이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해피엔딩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쁜 마음이 드는 한편, 슬픈 생각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2 살 거북이를 받으면 다음에 죽는 건 제가 될 거예요. 그때 거북이는 저처럼 슬퍼하며 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건 저 혼자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그때부터 제 용돈은 솜사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케이신문 2011 년 11 월 18 일자에서 인용).

우리의 성성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부속.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 담긴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범

(도밍고 라모스-리손 신부)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높은 존경심은 그의 초기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1] 이미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영성적 고찰』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초기 신자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초기 모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했습니다.[2] 강론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황은 교회 교부들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했습니다.[3]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교황의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4]

대답이 뻔해 보일 수 있지만 명확히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할 때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요? 그의 저술에서 우리는

그가 이 용어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추종자 인 “열두 제자”의 생애부터 4 세기까지 연장 된 기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안의 박해가 일어났던 4 세기 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사실 기독교 시대의 첫 3 세기는 교회의 역사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된 첫 번째 단계로, 313 년 밀라노 칙령 이후 크게 변화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7]

또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질문은 1 세기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며,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된 역사적 순간에 “오이쿠메네”의 중심부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8] 로마 사회가 매우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역사의 한 순간에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9] 오푸스데이의 창시자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현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 신자

공동체에는 모든 사회적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이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각 공동체에는 다양한 직업이 대표되었습니다. 루카와 같은 의사, 젤라 같은 변호사, 에라스투스 같은 은행가, 아폴로 같은 교사, 알렉산더 같은 장인, 크고 작은 상인, 교도관과 그 가족, 군인과 정부 관리, 집정관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등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예와 자유인, 민간인과 세바스찬과 같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10]

우리가 채택한 방법론은 오푸스데이 창시자가 초기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는 글에서 특정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초기 기독교인의 특정 이름을 사용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시기의 간략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 문헌과 설명은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1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의 성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성덕을 향한 보편적 부르심의 주요 특징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인 다음, 가족과 사회 생활을 성화시키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수반하는 사도적 차원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 1,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을 향한 성소의 주요 특징

성 호세 마리아의 가르침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 중 하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푸스데이에 대한 성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메시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오푸스데이에 대한 성소를 초대 신자들의 성소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지점을 찾고 있다면 오푸스데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부름받은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며 그리스도인 성소를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동료 시민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11]

이 본문이 제시하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찾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12] 그러나 우리는 이 찾기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거룩함이 하느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13] 겸손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신성화는 왜곡되어 추정과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영혼이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직면하게 될 때 영적 삶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14]

거룩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과 행동 방식을 가진 특정한 사람에게 육화된 현실로 간주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추종자들의 형제애적 행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름입니까! -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데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형제를 대하는 방법을 배우세요.”[15]

우리는 이러한 ‘성인’ 중 일부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몇몇은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16]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열매 맺은 삶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 A, 그리스도교의 새로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새로움은 처음부터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원시 그리스도교에 깊은 뿌리를 둔

“복음”(에반젤리움)이라는 단어가 새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는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17] 세례를 받는 것에서 비롯된 이 새로운 삶은 초기 그리스도교 개종자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교도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18] 그리스도교의 새로움은 1 세기의 현대 종교와 간략하게 대조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특정 민족의 종교이든, 그리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리스(시비타스)의 신에게 바쳐진 종교이든 외부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숭배는 시민과 신성한 것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수반했습니다.[19]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이교도 종교의 다른 많은 측면을 대체했습니다, [20]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노바 종교(새로운 종교)로 보였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오푸스데이의 새로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1 세기의 노비타스 크리스티아나와

비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의 이 새로움은 복음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복음의 진정한 영성은 초기의 모든 그리스도교 환경에서 거룩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21]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이 새로움을 “오래된 새로움”이라고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않았습니다.[22]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한 것의 영원한 생명력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이 일의 새로움은 단순한 인간 현상의 새로움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아버지처럼 가족에게 새것과 낡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느님의 것의 새로움입니다 (마태오 13:52). 자녀여러분, 이 새로움은 유일한 “좋은 소식”[부에나 노에바]에 참여하는 것이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실천했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놀랍게 돌아가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23]

성 호세마리아에게 기독교의 새로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한 14:6),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마태오 16:24). 따라서 교회 초기부터 복음에 의해 추적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범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완전에 대한 추구, 즉 개인적 거룩함과 사도적 활동의 삶을 현실화하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24]

위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갑 등 우리에게 전해진 간증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따르던 초기제자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했습니다.[25]

## B, 그리스도인 생활의 급진성

다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급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26] 고전 고대나 유대인 중 누구도 감히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것을 추종자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땅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큰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27]

이러한 급진성은 성 호세마리아가 강론 '위대한 미지의 것'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짧지만 의미로 가득 찬 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친교와 기도에 굳게 서서' (사도행전 2:42).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위해 똑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단순화된 버전'만 실천해야 하는 이류 그리스도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8] 즉, 성덕에 대한 부르심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제시하신 완전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9] 그는 저서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제와 수도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0]

그리스도인 성소의 급진적인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순교로 표현되는 완전한 자기 헌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것을 막지못하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31]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한 신앙을 삶으로 증거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32]

순교의 절대적인 자기희생은 ‘영화된’ 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순교의 이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또한 세례성사의 헌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33] 이러한 맥락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오푸스데이에 대한 성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을 찾는다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넬 벨 메조 델라 스트라다’라는 말이 있듯이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푸스데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육체적이든 지적이든 자신의 삶과 일에서 자신의 상태에서 거룩함을 성취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의 소명은 어부, 농민, 상인 또는 군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마태오 5:48)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34]

이러한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 순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에 대해 말하는 ‘길’의 몇 가지 요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글을 쓸 때 순종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은 죽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다!’”[35] “당신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되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사명을 가진 선교사가 되데 자신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데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 즉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순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36]

#### C, 기도의 중심 역할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함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37] 초기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특정한 수단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거룩해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수록, 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그리스도께 속할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기 신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한 기록에서 예수님을 엿볼 수 있었던 것과같은 의미입니다.”[38]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교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삶은 금욕적인 수행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39] 오푸스데이의 창시자는 다시 한 번 우리 주님 자신과 그분의 초기 추종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때때로 밤새도록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40] 그리고 스승의 이러한 변함없는 태도를 보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라고 물었습니다. 성 바오로 신자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로마 12, 12)고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모범을 모든 곳에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 루카는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라는 예술가의 붓 터치와 같은 문구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41]

성 호세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젊은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도행전은 유쾌한 일화들로

가득합니다.”[42] “기도의 삶”이라는 강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모범을 보여 주는 장면이 있어 제가 즐겨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빵을 나누어 먹는 친교와 기도에 힘썼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처음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사도행전 1:14). 베드로가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를 대신하여 교회에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습니까’(사도행전 12:5).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는 우리 내면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너희 중에 슬픈 사람이 있느냐’고 성 야고보가 묻습니다. ‘기도하십시오’(야고 5:13). 성 바오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1 테살 5:17)는 말로 이를 요약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마세요.”[43]

“기도의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때때로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44] 또는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45]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신성한 묵상으로 이끄는 하느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6]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심장의 박동처럼, 맥박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느님의 임재 없이는 관상 생활도 없습니다.

관상 생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수고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집이 주님의 건물이 아니라면 건축업자의 수고가 헛되니까요.” [47]

## 2. 성화의 영역으로서의 일상 생활

성 호세마리아의 글과 설교에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의 성화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48] 평범한 직업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기”라는 강론에서 교황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잘 알려진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소명의 장엄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당시 익명의 저자의 말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육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신에 있지만 육체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몸의 모든 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서 자발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49]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일상 생활의 영역에 있습니다.[50]

#### A, 가정 생활에서의 성화

성 호세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인 가정이 오늘날 가정의 모델로 여겨집니다.[51]라고 하시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백부장

고르넬리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성 바오로의 사도직에 협력한 아굴라와 프리실라, 자선으로 요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워준 다비다 등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수많은 가정과 가족들에서 우리 주님의 첫 제자들의 전파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52]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양육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빛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새 생명을 얻은 초기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 바오로는 그들을 ‘가정 안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1 고린 16:19).”[53]

그는 자녀들에게 오푸스데이의 가족 정신에 대한 필수적인 필요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오푸스데이에 속한 우리 모두, 내 자녀들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을 구성하는 이유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한 몸’(사도행전 4:32)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관심의 쓰라림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54] 이러한 강한 일체감은 교회의 일부로서 사업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5] 교회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56]

그러나 성 호세마리아는 이 사업의 일치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동시에 몇몇 가정을 중심으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성 바오로의 “가정 안의 교회” 또는 “가정 교회”를 설립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형제애와 자선, 복음적

사랑의 진정한 원천 인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57]

순결은 삶의 상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58] 이 사실은 1 세기의 그리스도교 가정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59] 처녀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60] 오푸스테이의 창시자는 자녀들에게 보낸 교훈에서 이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런 법적인 틀에 가두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위해 개인적으로 헌신한 금욕주의자들과 처녀들을 포함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수녀원에 갇혀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남녀들처럼 세상 한가운데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동료 시민들과 어떤 면에서도 차별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61]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같은 지침에서 오푸스데이의 일부 회원들이 독신으로 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독신의 이유는 사랑, 사랑의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확인된 총각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슬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각이 아닙니다." [62] 독신주의는 "사도직을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영구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움직임의 더 큰 자유를 제공한다"고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3] 그리스도교 1 세기에 평범한 신자들이 성 호세마리아가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독신과 동정녀의 삶을 살았다는 증언이 풍부합니다. [64]

## B, 사회 생활에서의 거룩함

성 호세마리아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부터 모든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덕을 이룰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회는 우리 초월자들 안에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지식인과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와 장인, 기업가와 노동자, 외교관과 상업, 금융, 저널리즘, 농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삶 그 자체처럼 경이로운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입니다. 또한 모든 정직하고 고귀한 인간 직업이 사도직과 신성한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직에는 참되고 진정한 전문성이 있습니다.”[65]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글에 익숙한 분들은 이 말씀에서 오푸스데이의 정신에 따라 성화되어야 할 중심 현실, 즉 평범한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66] 발'고랑'에서 읽은 대로: "초기 그리스도인 시대 이후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 성인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노력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67]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호세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지적한 후 즉시 그것을 오늘날의 남녀와 연관시킵니다. 순전히 ‘이론적’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를 처음 따르는 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가능한 한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도적 열망에 기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차원의 삶을 새로운 관점,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 동료의 거룩함에 기여하고, 여러분의 일과 환경을 거룩하게 하는것입니다.”[68]

이미 언급했지만, 로마 제국의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초기 신자들이 극복해야 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상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해와[69] 그리고 순교[70] 3 세기에 걸친 박해와 순교, 특히 시르타의 프론톤, 셀수스, 포르피리 등 지식 엘리트들의 공격;[71] 루시안과 같은 작가들의 조롱;[72] 여론에 의한 비난;[73] 무신론, 외국 이단, 사기, 마술, 식인 풍습 등에 대한 비난.[74] 그리스도교인의 대응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양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합니다, [75] 비록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말입니다.

### 3, 사도적 확장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성 호세마리아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큰 매력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사도적 열정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오늘날의 사도는 어떤것도 개혁할 필요가 없으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대사에 관여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고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기만 하면 됩니다.”[76]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오푸스데이의 창시자는 신앙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종교적 무지라고 생각했습니다.[77] “우리 삶에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길에서 가장 음울한 종교적 무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깊고 지속적인 교리 사도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가톨릭 신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소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78]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적 노력은 믿음을 가진 최초의 형제자매 한 사람 한사람의 개인적인 사도직에 기초했습니다. [79]

“이것이 최초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행동한 방식입니다. 그들의 초자연적 소명은 그들에게 수행할 사회적 또는 인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세계에 대한 개념과 정신에 침투하여 그들이 움직이는 사회와 관련하여 결과를 초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개인적인 사도직을 가지고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포로 생활 중에도 이미 가이사 집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필리 4:22).

빌레몬에게 보낸 성 바오로의 편지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누룩이 직접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선의 영향을 통해 노예제도에 기반한 그 사회의 구조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아닐까요?

“한 세기가 조금 더 지난 후 터툴리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제 왔지만 이미 도시, 섬, 마을, 지방 자치 단체,

의회, 군대 캠프, 재판소, 의회, 궁전, 원로원, 포럼 등 세상과 여러분의 모든 장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너희의 성전만 남겼습니다(터툴리안, 아폴로게티쿠스, 37).”[80]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말은 다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프리카 작가의 격정적인 심정을 고려할 때 2 세기 말과 3 세기 초에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81] 성 호세마리아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에서 신앙의 첫 형제자매들이 수행한 개인 사도직의 효능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봅니다.

개인적 사도직은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는 성서적[82] 깊은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83]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신앙과 실천의 일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사도직을 통해 모든 사회 부문,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최초의 그리스도인 신자들과 유사한 삶의 증거를 가져다줍니다.”[84]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자선을 통해 자양분을 얻고 키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1967 년 강론 ‘사랑의 힘’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인간적 연대나 자연적 친절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 열렬한 자선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2 세기에 저술한 터툴리안은 당시 이교도들이 신자들의 행동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들은 종종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Tertullian, *Apologeticus*, 39, 7 (PL 1,471))라고 말하곤 했습니다.”[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증언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세대는 대화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86] 오푸스데이의 창시자가 자녀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복음서의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예수님께서 남녀와 나눈 수많은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영혼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최초의 열두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행과 사도 여행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영혼들과 이 초자연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ergo fides ex auditu... “에르고 피데스 엑 오디오” (로마 10:17);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들음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그리스도교 세대는 우리 소명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이해했습니까!” [87]

성 호세마리아는 강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세대의 사도적 노력의 또 다른 예에 대한 찬사를 표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놀라운 사도적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떠올리기에 좋은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사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많은 도시와 마을에 예수의 명성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그의 이름은 아폴로였으며 ‘성경에 근거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열심이 가득한 영으로 요한의 세례 외에는 세례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예수의 생애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24-25).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에 대해 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충만함을 얻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인 아굴라와 프리실라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르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도를 열망하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아폴로에게 다가가 ‘그와 친구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사도행전 18:26).”[88]

사도행전의 이 구절에 대한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해설은 이 두 초기 그리스도인의 활기차고 단호한 사도적 열정에 대한 찬사를 보여줍니다. 이 궁극적인 순간을 이용하여 박해자들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순교자들에게서도 같은 결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89]

개인적인 사도직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엄청난 풍요 로움을 발견 한 사람에게 적합한 열정으로 표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호세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신중함과 신감으로 효과적인 사도직에 날마다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90]

마지막 질문은 모든 사도적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신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매우 현실감 있게 대답합니다: "사도직의 효과는 항상 성인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덕은 초기 그리스도인 시대와 동일한 수단을필요로 합니다."

[91]

## 결론 요약

성 호세마리아가 쓴 위의 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과 거의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언급의 신선함과 따뜻함은 오푸스데이의 창시자가 자신의 영적 경험과 그들이 대표하는 모델 사이에 깊은 친밀감을 발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의 사도적발자취가 담긴 성경 구절에 대한 그의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의 성화에 관한 초기 신자들의 증언은 새로 태어난 것의 매력과 우리 주님께서 추종자들에게 요구하신 전적인 응답을 결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1 세기의 성화에 대한 부르심이 그 본질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관련하여 우리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형제자매들이 살았던 거룩함은 세례에 기초한 것이었고, 세례는 그들을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급진적인 헌신을 가져왔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또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즉 평범한 삶과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종종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오푸스데이 신자들에게 반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적 노력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 시대를 위한 분명한 모델을 발견했으며, 이는 첫 세기 동안 성취한 긍정적인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첫 형제자매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모든 요구대로 실천하고 가족과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1] 그는 1933 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야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최초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혈통, 국적, 언어, 의견에 근거한 어떤 분열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1933년 7월 16일자 19 호 서신)

[2]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데 발라구에르, 영적 고려 사항, 현대의 임 프리타, 쿠엥카 1934, 99 쪽. 이 요점은 길, 925 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됩니다.

[3] 예를 들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강론에서 발견되는 성 어거스틴의 많은 인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참조: D. Ramos-Lissón, “La presencia de San Agustín en las Homilias del Beato Josemaría Escrivá de Balaguer,” in *Scripta Theologica* 25 (1993) 901-902). 라모스-리슨(D. Ramos-Lisson), “El uso de los ‘loci’ patristicos en las *Homilias* del Beato Josemaría Escrivá de Balaguer,” in *Anuario de Historia de la Iglesia* 2 (1993) 17-28 참조.

[4] 우리가 찾은 마지막 문헌은 1970 년 크리스마스에 행한 “결혼,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강론입니다(호세마리아 에스꼬바,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다, 1985 년 더블린, 29-30쪽). 지상 생애가 끝날 무렵, 그는 오푸스데이에서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그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한 것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1975 년 2 월 19 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모임).

[5] 1965년 10월 24일자 서신, 13 번 참조.

- [6] 우리는 1941 년 12 월 8 일 교령 90 호, 주 128 항에서 성 세바스티안에 대한 언급(아래 주 10 참조)을 통해 이 시기의 중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은 막시미아누스 박해 때인 304 년경 순교했다.
- [7] 함만(A. Hamman)과 같은 일부 저자는 "초기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그의 유명한 저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첫 2 세기 동안 살았던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삶 (95/197), 파리 하세트, 1971.
- [8]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 그리스어 용어는 로마 제국의 확장을 가리킵니다. 참조: K. 레이저, 오이쿠메네, 에큐메니칼 운동 사전, WCC, 그랜드래피즈, 1991, 741 페이지.
- [9] A. 도르스, 『데레초 프리바도 로마노』, 제 9 판, 은사, 1997, 48-53쪽, 275-304쪽 참조.
- [10]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 128 쪽, 복자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 교령, 1941 년 12 월 8 일, 90 호, 참고.
- [11] 에스κρι바 신부와의 대화, 홀, 프린스턴, 1993, 24쪽. 비슷한 견해는 같은 책, 62쪽 참조.
- [12] 1940년 3월 11일자 편지, 21쪽 참조.
- [13] 참조: 페르난도 오카리즈, "라 필리아시온 디비나, 레알리다드 센트랄 데 라 비다 엔 라 엔세뇨난사 데 몬스. Escrivá de Balaguer," in *Mons. Josemaría Escrivá de Balaguer y el Opus Dei*, 2 판, 은사, 1985, 178쪽; S. Garofalo, "El valor perenne del Evangelio," *Scripta Theologica* 24 (1992) 27; 유타 부르그 그라프, "신성한 필리아에 대한 인식", M. Belda 외 (eds.) 성결과 세계: 복자 호세 마리아의 가르침에 관한 연구, 홀, 프린스턴 1997, 107-125쪽.

[14]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33 번. 그가 신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클레멘티코, XI, 114, 4 [SC 2, 183])에 이미 등장하는 "테오시스", "테오포이시스"("신격화", "신성화")라는 용어의 반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동방 교회 교부들이 많이 사용했으며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표현할 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참조: G.W.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2nd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68, 649f.; B.P.T. Bilaniuk, "The Mystery of Theosis or Divinization", in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195 (1973) 337-359).

[15]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 길, 홀, 뉴욕, 1985, no. 469. 그는 다른 작품에서도같은 의미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96쪽; 대장간, 홀, 프린스턴, 1988, 622쪽.

[16] 액타 상크 룸, 요아네스 뫼르시움, 앤트워프-브뤼셀, 1643; 마티롤로지움 로마눔, 마리에티, 토리노, 1922.

[17] 참조: G. 프리드리히, "에반게리온", 『그란데 레시코 델 누오보 테멘토 3』, 1060-1106.

[18] 라모스-리손(D. Ramos-Lissón), "La novità cristiana negli apologi del II secolo", *Studi e Ricerche sull' Oriente Cristiano* 15 (1992) 18f 참조.

[19] 참조: A. J. 페스투기에르, 르 몽드 그레코로망 au 템포 드 노트르 시니르, I, 블라우드 앤 게이, 파리 1935, 53쪽.

[20] 참조: G. Bardy, *La conversión al christianismo durante los primeros siglos*, Span. trans., Desclée de Brouwer, Bilbao 1961, 136-157쪽.

[21] 1940년 3월 11일자 21 호 편지.

[22] 1932년 1월 9일자 91 호 편지. [23] 1961년 1월 25일자 13 번 편지. [24] 1940년 3월 11일자 21 호 편지.

[25] 참조: 라모스-리손(D. Ramos-Lissón), 엘 세기미엔토 데 크리스토, "로스오리엔테스 데 라 에스프리타다 데 로스 프리미로스 크리스티안노스", 테올로지아 에스프리타칼 30 (1986) 3-27.

[26] 같은 책, 25<sup>쪽</sup>; 같은 책, "라 라디칼리다 드 라 라 라디칼리다 드 라 라디칼리다 데 로스 프리미로스 크리스티안노스", XX 시글로스 5 (1994) 42-57.

[27] 참조: 마태오 19:29(마르코 10: 29; 루카 18:29). 이 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참조: 마태오 10:39; 16:24; 루카 14, 25-33; 요한 12, 23-26).

[28]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34<sup>쪽</sup>. 이 본문에 대한 좋은 주석은 J. M. 카시아로, "라 산티시카시온 델 크리스티아노 엔 메디아 델 무르드,"에서 찾을 수 있다.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데 발라게르와 오푸스데이, 117f.

[29] 참조, 마태오 5:48.

[30] 더 웨이, 291 호.

[31]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로마서, 5, 6 교회의 교부들, 1 권: 사도 교부들, CUA Press, 1947.

[32] 안디옥의 성 이그나티우스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수난에 죽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마르코 5 참조, 에베소서, 10 참조).

[33]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트는 2 세기에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교가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면, 순전히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영혼은 삶과 말에서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순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위해 복음에 따라 자신을 인도하는 영지주의적 (영적) 순교를 겪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Stromata*, IV, 4, 15 [GCS 52,255]). 여기서 클레멘트는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기독교 영지주의”, 즉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클레멘트 자신이 자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싸워야 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34] 대화, 62 번.

[35] 더 웨이, 622 번.

[36] 위의 책, 848쪽.

[37] 참조: A. 아란다, 엘 크리스티아노, “다른 그리스도, 입세 그리스도”, 엘 펜시멘토 델 비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립바, M 벨다 외 (역), 성결과 세계: 복자 호세 마리아의 가르침에 관한 연구, 홀, 프린스턴 1997.

[38] J.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대장간, 10 번. 여기에서 인용 할 수도 있습니다. 470; 1967 년 3 월 19 일 편지, 139 호.

[39] 기독교 초기 세기의 기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 함만, 라 오라시온, 헤르더, 바르셀로나 1967, 439-776쪽. 기도와 묵상의 삶은 성 호세마리아의 저술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호세마리아 에스크립바, "기도의 삶", 하느님의 벗들, 홀, 런던-뉴욕, 1981, 238-255쪽을 보라. 그의 삶과 가르침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J.M. 카시아로, 『세계의 그리스도교』, 150-157쪽; F. 오카리스, 『신성한 삶, 그 중심은 하느님이다』, 150-157쪽. Escrivá de Balaguer," in *Mons. Josemaría Escrivá de Balaguer y el Opus Dei*, 200-203쪽; 조지 코티에, "기도와 신앙의 기본 구조", 성결과 세상, 89-106쪽; 마누엘벨라, "세상 한가운데 있는 관상가들", 로마나 27, (1998) 326-340쪽.

[40]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도상학적 표현은 초기 세기의 기독교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참조: H. Leclercq, "orante", *Dictionnaire D'Archeologie Chrétienne et de Liturgie*, 12, 2291-2322).

[41] 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119 번.

[42] 지침, 1935년 1월 9일, 258 호.

[43] 하느님의 친구들, 242 호.

[44]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16 번.

[45] 위의 책, 8 번.

[46] 위의 책, 107쪽

[47] 위의 책, 8 번.

[48]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와 "하느님의 친구들"에 실린 그의 강론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9] 하느님의 친구들, 63. 본문에 인용된 인용문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6(교회의 교부들: 사도 교부들, 362

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50] 참조: M. A. 타벳, "삶의 상황에서의 성화," 로마서 7, 169. *Comentario exegético a 1 Cor 7, 17-24*, in *Romana* (1988/1) 169-176; 주세페 달라 토레, "그리스도인, 세상의 삶", 『성결과 세상』, 191-210쪽.

[51] 참조,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 "결혼,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22-38쪽. 코맥 버크, "엘 베아토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와 엘 마트리모니오" 참조: 카미노 휴머니노와 소브르네추럴 소명", 로마나 19 (1994/2) 374-384; F. 길 헬린, "친숙한 삶, 카미노 데 산띠다", 로마나 20 (1995/1) 224-236; B. 카스티야코르타자르,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의 엔세넌스에서 "바론-무저"의 안티프로로지아를 고려하라", 로마나 21 (1995/2) 434-447  
참조. 이 시대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는 A. 드 미에르 베레즈, "고대 그리스도교에서 '가족'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측면", 『종교와 문화 30 (1994) 437-463 을 참조하십시오.

[52] 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아니. 30. 또 다른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교 결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테르툴리아누스(*Ad uxorem*, II, 8, 6 [CCL 1, 393-394])의 텍스트를 용합니다(Ibid, 9 번).

[53] 대화, 103 번. 신약성경에는 스테반의 집에 모인 교회(고전 1:16), 빌레몬의 집(빌 2 장), 고넬료의 집(행 16:15), 루디아의 집(행 16:31), 오네시포로의 집(딤후 1:16) 등 여러 "가정 교회" 또는 "가정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안디옥의 성 이그나티우스의 활동도 집집마다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참조, *Smyrneans*, XIII, 1 [Fpatr 1, 178-180]).

유스티누스가 증언하듯이 이러한 상황은 2세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순교 사도행전에서 루스티쿠스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유스티누스는 “각자가 선호하고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라고 대답했습니다(『유스티누스 사회』, III, 1 [BAC 75, 312]).

[54] 1945년 5월 6일, 23 호편지.

[55] 오푸스데이의 창시자가 이 일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푸스데이는 교회의 작은 부분입니다.” 페드로 로드리게스, “교회에서 오푸스데이의 위치”, 페드로 로드리게스, 페르난도 오카리즈, 호세 루이스 일라네스, 교회에서 오푸스데이, (홀, 프린스턴, 1994), 1 쪽.

[56] 지침, 1935년 5월, 1 참조.

[57] *Ibid.*, 85. 이 교령의 이 구절은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가 작성한 주교 교서 155 항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자들이 ‘한 몸’(행 4:32)이었던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로 돌아가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애정으로 가득 찬 그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드리고, 각 작은 공동체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사도와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애와 자선의 진정한 샘인 우리 초월 형제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의 목적입니다.

[58] 초기 세기의 처녀성과 금욕주의에 관해서는 T. 카멜롯, 처녀 크리스티: 라 처녀성 오 프리미에르 시클레스드라 교회. 파리, 1944; J. Joubert, “처녀성 또는 젊은 처녀들”, *Revue de Droit Canonique* 40 (1990)

117-133.

[59] 참조: 마 19:12. 동정과 독신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존중되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에피스토라 코린티오스, I, 38, 2 (Fpatr 4, 120);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스미르네우스, XIII, 1 (Fpatr 1, 176-180); 헤르마스, 목사, 비전 I, 2, 4, II, 3, 2 (Fpatr. 6, 66, 78); *Semblances*, IX, 29, 1; IX, 31, 3 (Fpatr 6, 274; 276-278);

(CSEL 2, 44-45); 키프ريان, 처녀의 복장에 관하여, 3-6 (CSEL 3/1, 189-192); 올림푸스의 메토 디우스, 연회, 찬송가 (SC 95, 310-321).

[60] 수도원의 탄생과 그에 따른 세상과의 분리는 3 세기 말에 기원을 둔 후기 현상입니다. (참조: L. Bouyer, *La spiritualité du Nouveau Testament et des Pères*, Aubier, Paris, 1966, p. 369).

[61] 지침, 1941년 12월 8일, 81 호.

[62] 위의 책, 84 쪽.

[63] 대화, 92 번.

[64] 2 세기에 아테나고라스가 쓴 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과의 더 큰 친밀감을 얻기 위해 독신으로 노년에 이른 많은 남성과 여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레가시온, 33).

[65] 1959년 1월 9일자 11 번 편지.

[66]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서 일의 성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호세 루이스 일라네스, 일의 성화, 포 코트, 더블린, 1983;

Id. "일, 정의, 자선", 『성결과 세계』, 211-242쪽; J. M. 오베르, "일의 성화", Mons. Josemaría Escrivá de Balaguer y el Opus Dei, 215, - 224쪽; P.P. 도나티, "엘 시시그마도 델 트리바조엔 라 소시오로기카 엔 엘 에스피리투 델 오푸스데이", 로마나 22 (1996/1) 122- 134쪽. 초기 그리스도인의 일과 영성에 관하여: S. Felici (Ed.), *Spiritualità del lavoro nella catechesi dei Padri del III-IV secolo*, (Biblioteca de Scienze Religiose 75), LAS, Rome 1986; A. Quacquarelli, "L' educazione al lavoro: dall' antica comunità cristiana al monachismo primitivo" in *Vetera Christianorum* 25 (1988) 149-163.

[67]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 고랑, 홀, 뉴욕, 1988, no. 490.

[68] 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아니. 46. "요셉의 작업장에서" 전체 강론은 일의성화에 관한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참조,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9-56 번.

[69] 참조: P. 알라르, 박해의 역사, 2 권, 3 판, 가발다, 파리 1903-1905; T. 바우마이스터, "Mártires y perseguidos en el cristianismo primitivo," in *Concilium*

[70] (E) 19 (1983) 312-320; J. 시앗, "La persécution des chrétiens au début du IIe s. d' après la letter de Pline le Jeune et la réponse de Trajan en 112," in *Études Classiques* 63 (1995) 161-170.

[71] 참조: L. 시그넬리, "시그니피카토 델 마르티리오: Pensieri dei Padri della Chiesa," *Studi Francescani* 92 (1995) 19-41.

[72] 참조: P. 드 라브리올, 라 리액션 파이엔. *Étude sur la polemique antichrétienne du Ier au VIe siècle*, Artisan du livre, Paris

1948; D. Ramos-Lissón, "Alegorismo pagano y alegorismo cristiano en Orígenes. La polémica contra Celso," A. González Blanco (Ed.), *안티 구에다드와 그리스도교* (무르시아) 7 (1990) 125-136 에서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와 문화, *안티 구에다드와 기독교* 7 (1990) 125-136.

[73] 루시안, *De morte Peregrini*, Loeb Classical, 하버드 대학 출판부-윌리엄 하이네만,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및 런던, 1962, 루시안, V, 1-51<sup>쪽</sup>.

[74] 이 비난의 반향은 터툴리안, *변증서*, III, 1(CCL 1,9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5] 참조: H. 르클레르크, "Accusations contre les chrétiens," *Dictionnaire D'Archeologie Chrétienne et de Liturgie* 1, 265 및 ff.

[76] 마가복음 16:15. 우리는 또한 2 세기와 3 세기 기독교 변증가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아리스티데스의 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주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며, 음식과 음료와 다른 모든 물건에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다가오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합니다." (*변증*, XV, 10-11 [BAC 116, 131]).

[77] 고랑, 아니. 320. 같은 아이디어가 길에서 표현됩니다. 376.

[78]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트는 이미 그의 시대에 "유일한

악은 무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Stromata*, VI, 113, 3 [GCS 52, 488]).

[79] 1953년 8월 편지, 19 번. 교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는 이와 관련하여 여론의 영역도 고려하게 되었다(1946년 4월 30일자 73 호 서신).

[80] G. 바디, 1세기 동안의 기독교로의 개종, 앞의 책, 294-307쪽 참조.

[81] 1959년 1월 9일자 22 호 편지.

[82] 참조: K. 바우스, 매뉴얼 데히스토티아 데 라이글레시아, H. Jedin, I, (Sp.trans.), 헤르더, 바르셀로나 1966, 311-319쪽.

[83] 참조: 마태오 5: 16; 야고 2:17.

[84]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마르코 4, 사도 교부들, 97-98쪽; 에베소서 10 장, 같은 책, 92쪽 참조.

[85] 성가브리엘의 사업에 대한 지침, 1935년 5월, 94 호.

[86] 하느님의 친구들, 225 번.

[87] 참조: D. Ramos-Lissón, "El diálogo entre el poder político romano y los christianos, según la literatura martirial de los tres primeros siglos," in D. Ramos-Lissón (ed.), *El diálogo Fe-Cultura en la Antigüedad cristiana*, Eunate, Pamplona 1996, 199-225.

[88] 1965년 10월 24일자 편지, 13 번.

[89] 호세 마리아 에스끄리바, 하느님의 친구들, 269쪽.

[90] 예를 들어, 우리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말한 것처럼 순교로 가는 길에 군인 바실리데스의 개종을 이끌어낸 순교자

포타미에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카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역사 교회사』, VI, 5. 참조: D. Ramos-Lissón, "La conversion personnelle dans la littérature des martyrs dans l'antiquité chrétienne (I-III siècles)," in *Studia Patristica* 29 (1997) 101-108.

[91] 더 웨이, 971 번.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예는 성누가의 엠마오에서 온 클레오바와 그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비스에 코가 불타고, 비아에 가슴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92] "여러분이 사도라면, 엠마오 제자들의 이 말씀이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을만나는 동료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93] 1967 년 3 월 19 일자 139 호 편지.